

# 광주 전일빌딩245, 매주 토요일 시민축제 펼친다

내달부터 '타임리스 24.5h' 진행 시민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 운영 융복합 공연·전시·버스킹 등 다채 5·18 다크투어리즘 등 올해 첫 선

시민복합문화공간인 전일빌딩245가 올해 더욱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민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전시, 융복합 공연, 초대전, 버스킹, 투어, 공예 체험, 플리마켓, 인문학 토크 등으로

구성된 전일빌딩245 시민문화체험 특화 프로그램인 '타임리스 24.5h'가 시작된다.

전일빌딩의 새로운 미래를 의미하는 '타임리스 24.5h'를 주제로 마련된 올해 프로그램은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만나볼 수 있다.

올해 첫 문을 여는 6월 프로그램은 전일 체크인 파티, 원데이 클래스, 아트 스테이지, 5·18 다크투어리즘, 시민참여 버스킹, 인문학강연 등 13차례 진행된다.

'전일 체크인 파티'의 주요 프로그램인

'전일 스탬프 투어'는 '방탈출게임'을 동기(모티브) 삼아 전일빌딩245 건물 내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이다. 투어를 완료한 시민에게 보냉백과 대인시장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또 1층 로비에서는 새날밴드가 퓨전 국악과 트로트를 선보이며, 10층 RF에서는 미술사 이한의 신비로운 버블쇼가 이어져 전연령층을 아우르는 공연이 펼쳐진다.

인기 체험프로그램인 '원데이 클래스'는 캔들, 아로마, 액세서리, 문구 만들기 등 기존 클래스에 올해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닭갈정, 호두과자, 과일

컵, 주스 등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본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5·18 다크투어리즘'과 '올데이 페스타'는 올해 첫선을 보인다. 문화·역사·예술 등 관광자원을 가진 전일빌딩245만의 특징을 살리는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등 광주 곳곳을 연계하는 것으로 광주시민뿐 아니라 관광객, 외국인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내가 버스킹, 버스킹'도 마련된다. 매주 다양한 장르를 버스

킹 형식의 상설 공연으로 진행한다.

유정아 문화도시조성과장은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시민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이 전일빌딩245의 랜드마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한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일빌딩245 시민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 '타임리스 24.5h'의 자세한 사항은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jeoniL245>), 인스타그램(@jeoniL24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전남도, 장마철 수산 분야 피해 제로 도전

전남도는 장마철 수산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 피해 제로(zero)를 목표로 6월 10일까지 우심지역 중심으로 육·해상 양식장, 인양기·부잔교 등 3만6936개소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아열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짧고 매우 강하게 퍼붓는 국지성 호우와 같은 기록적 기상현상이 최근 자주 관측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수산업은 주로 해상과 연안지역에서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자연재해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여름철 수산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516억원, 고수 403억원, 태풍 208억원, 적조 149억원으로 집중호우와 고수는 피해가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과거 피해 사례가 있었던 강진 전복 가두리, 영광 우렁이 양식장 등 재해 취약시설에 집중해 연안시군과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그 외 시설은 시군별 자체 전수점검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재해별 관리 요령 숙지 여부 △직원 비상연락망 구축 △재해보험 가입 홍보 △입식신고 여부 △인양기, 부잔교 등 수산시설·장비 정상 가동 여부 관리 실태 등이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철저히 파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양식어가에서도 사육량 준수, 재해보험 가입, 입식신고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제15회 광주비엔날레 D-100 '마당 스케치북' 그림대회

광주 시민과 학생들이 29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D-100 기념 '마당 스케치북' 그림대회에서 기후위기 환경 등을 형상화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나건호 기자

## 전남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65명 육성

전남도가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65명을 선발, 농업정책자금 2억원을 연 0.5%의 저리융자로 추가 지원한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2019년 이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돼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중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 농업교육 이수 시간, 자조금 및 재해보험 가입 여부, 공동브랜드 출하 실적, 경영 규모 및 소득 등을 평가해 선발됐다. 선정된 65명 중 40세 미만이 26명에 달하는 만큼, 청년농이 많아 전남 농업 미래 인력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선발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선정에 따른 지원금 5억원과 함께 총 7억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농지 구

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농기계 등 기타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우수 후계농업인제도를 통한 융자 추가 지원 및 경영 교육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 규모 확대 및 농업 소득 증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후계농 지원을 확대해 전남 농업을 이끌 유능한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올해 후계농업경영인 874명(청년 740명·일반 134명)을 선발해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청년후계농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최대 월 110만원의 영농정책자금 지원 및 소득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임대·창업형 스마트팜 및 창업농장 지원 등 연계사업도 진행 중이다.

오지현 기자

## 광주보건환경연, 낙농 원유 안전성 확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낙농 원유를 수집하는 광주지역 집유업체 1곳과 착유농가 6곳을 대상으로 정기 사전 위생검사를 실시했다.

29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가 잔류물질 검사체계(NRP) 시행에 따라 지역 집유업체 1곳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원유를 수거해 항생제와 살충제 등 잔류물질을 정밀검사하고 있다.

또 5월초 집유장의 가공 전 저유조의 원유 전량에 대해 53종 항생제와 살충제 정밀검사를 48시간 이내 신속 실시한 후 유

통해 원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착유농가 6곳을 대상으로 해마다 6회 이상 집중적으로 착유 위생 상태, 젖소 사육실태를 조사하는 착유가축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광주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우유 및 유제품을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사전 위생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반드시 제품에 표기된 유통기한 및 냉장·냉동 보관 방법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미래차 생태계 구축 국비 지원 요청

기재부 2차관, 미래차 현장 방문 강 시장, 국비 사업 5건 등 건의

김운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빛그린산단, 미래차국가산단, 소부장특화단지 등 국비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광주시는 김 차관에게 광주 미래차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김운상 기재부 2차관이 광주의 미래차산업 전진기지인 빛그린산단을 비롯해 미래차국가산단, 소부장특화단지 등 주요 국비사업 현장을 찾아 광주 미래차 생태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광주그린카진흥원을 방문해

'광주 미래차산업 육성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그린카진흥원, 광주도시공사로부터 미래차 산업 관련 추진사항 등을 보고 받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미래차와 같은 첨단산업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원동력"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입지 규제 완화 및 타당성 심사 조기 추진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차 부품기업인 LG이노텍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는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445억원) △인공지능 혁신 실증밸리 조

성(총사업비 6000억원) △AI반도체 통합검증센터 구축(총사업비 300억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총사업비 995억원) △광주시 노후상수관 정비(총사업비 950억원) 등 광주시 국비 현안 사업들에 대해 기재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 미래산업의 양날개인 인공지능(AI)과 미래차의 성장동력 등 광주시 핵심 시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기재부 단계에서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향후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노병하 기자

## “로컬 상점·소상공인 브랜딩 지원합니다”

전남도가 소상공인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2024년 브랜딩·디자인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갖고 있어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디자인 전문회사

와 컨소시엄을 구성, 10년 이상 된 제조업체 소상공인 및 상점가의 상호, 제품, 포장 등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을 일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6월 17일까지로, 신청 소상공인 중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 등을 거쳐 6월 말 신규 제작 8개소, 리뉴얼 10

개소 등 총 18개소를 선정한다.

모집 대상 및 신청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재)전남테크노파크(전남지식재산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담양의 한 공예업체 대표는 "제품에 적합한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을 개선한 후 소비자 반응이 좋아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오지현 기자